

전남도, 2조7000억 규모 '국가 수소특화단지' 유치 나선다

도, 영광 대마산단에 국내 최대규모 조성 위한 산업부 공모 신청 청정수소 에너지 벨트 조성 목표...저탄소 전환과 시너지 기대

전남도가 미래 먹거리인 수소 산업 육성에 나섰다.

전남도는 21일 "서남해안 청정수소에너지 산업 벨트" 조성을 목표로 산업통상자원부의 '수소특화단지' 지정 사업에 공모했다"고 밝혔다.

사업 핵심은 영광 대마산단 배후부지(2만5000㎡)와 대마산단에 총 사업비 2조 7000억원을 투입, 국내 최대 규모의 수소특화단지를 조성하는 것이다. 전남도는 1단계로 사업으로 500MW(메가와트)급 수소 생산시설을 구축하고 향후 1GW(1기가와트)까지 확장한다는 계획이다. 1기가와트는 한빛원전 1기의 연간 발전량에 해당한다.

전남도는 "전남에서 보유한 무탄소 전력을 활용해 안정적인 '청정 수소' 생산을 목표로 공모사업에 참여했다"고 설명했다.

전남도는 청정수소 에너지 산업벨트를 기반으로 2030년까지 국내 수전해(탄소를 배출하지 않고 수소를 생산하는 기술) 기업과 고등기술연구원 등 산·학·연이 집적된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수소 생산에서 저장, 운송, 활용까지 전(全)주기 산업 생태계를 완성한다는 계획을 마련했다.

전남 서남해안은 원자력발전시설과 국내 최대 수준의 재생에너지 잠재력을 동시에 보유한 청정수소 생산의 최적지로 평가된다.

수소특화단지로 지정된 강원(동해·삼척)과 경북(포항)은 저장·운송(강원)이나 활용(경북)이 중심인 것과 달리, 전남은 대규모 청정수소 생산 단지를 구축해 수소산업 성장과 산업 생태계 조성

까지 이끌어낼 수 있다는 게 전남도 설명이다. 원자력과 재생에너지 발전으로 생산된 전력을 활용, 전력 계통 포화문제 완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남도는 서남해안 청정수소 에너지 산업벨트 조성 사업에 수소 관련 20여개 기업이 참여 의사를 밝히고 있다는 점에서 사업 성공 가능성과 특화단지 지정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무엇보다 수소특화단지로 지정될 경우 탄소 다배출 산업인 철강·석유화학산업의 저탄소 전환과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7월 수소특화단지 신규 지정 공모를 공고한 산자부는 전남을 비롯한 지자체의 공모계획서를 접수한 뒤 향후 발표식사 등을 거쳐 오는 11월 최종 후보지를 선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전남도는 최근 영광군, 전남테크노파크, 고등기술연구원 등과 100kW급 고온 수전해 시스템 모듈 실증 업무협약을 맺고 국내 최초 고온 수전해 실증에 나섰다.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산자부의 '예비수소전문기업 지원사업'에 선정되는 등 수소 산업 육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전남도 관계자는 "청정수소는 재생에너지와 함께 탄소중립 시대 국가 산업 경쟁력을 좌우할 핵심 에너지"라며 "전남에 국가 수소특화단지를 반드시 유치해 전남을 청정수소 신산업의 중심지로 키워 전남 미래 100년의 성장동력으로 키우겠다"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어르신 바둑·장기 왕은 누구... 시민법인 대한노인회 광주 동구지회가 주관한 '제1회 동구지회 바둑·장기대회'가 21일 오전 광주 마사회 광주지사 문화공감홀에서 열렸다. 대회에 참가한 어르신 50여 명이 바둑과 장기 대국을 펼치며 실력을 겨루고 친목을 다졌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콘텐츠 산업 현재와 미래 엿본다...광주 에이스 페어 개최

28일~31일 DJ센터...20주년 맞아 융복합 콘텐츠 페스티벌로 진행

광주시와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는 국내 최대 콘텐츠 전문 전시회 '2025 광주 에이스 페어(ACE Fair: Asia Content & Entertainment Fair)'가 28일부터 31일까지 광주시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다.

올해로 20주년을 맞는 이번 행사는 '패러다임을 넘어, 광주로의 초대(Invitation from Gwangju: Beyond the Paradigm)'를 주제로, 미래 콘텐츠 산업의 방향을 제시하는 종합 축제로 치러진다.

올해 에이스 페어는 400개 기업이 507개 부스를 운영하는 등 역대 최대 규모로 치러진다. 국내 기업은 368개, 해외 기업은 32개가 참여한다. 이번 행사는 광주 콘텐츠 산업 20년의 성과를 기념하고, 글로벌 콘텐츠 시장과의 연결고리를 강화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SK브로드밴드, CJ ENM, 딜라이브, SAM엔

터테인먼트 등 국내 대표 콘텐츠 기업은 물론, 광주지역의 스튜디오버튼·울트라그린·핑고엔터테인먼트 등이 캐릭터·애니메이션 부스를 선보인다. 해외에서는 32개국 200여명의 바이어가 참가해 국내외 기업 간 비즈니스 상담이 활발히 이뤄질 전망이다.

올해는 20주년 기념 주제관이 마련돼 광주 콘텐츠 산업의 발자취를 돌아보고 미래를 제시한다. 캐릭터·애니메이션, 방송·웹툰, 디지털 콘텐츠 등 3개 융합관으로 구성되며, XR기업 뉴작의 체험형 콘텐츠 'XR-Runner'와 확장현실 슈팅 게임 등도 직접 체험할 수 있다.

해외바이어와 비즈니스 상담은 물론 지역콘텐츠 기업의 해외 진출을 위한 투자유치 및업과 청소년 인공지능(AI) 콘텐츠 경진대회 등 새로운 프로그램도 선보인다.

AI 경진대회는 지역 청소년이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창의력을 겨루는 장으로, 차세대 인재 발굴과 산업 진입 기반을 다지는 의미가 크다는 것이 광주시의 설명이다. 이 밖에도 웹툰·일러스트 인플루언서 초청 강연, 코스프레 대회, 굿즈마켓, 라이브 드로잉 등 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행사가 열린다.

행사장에서는 광주 최대 맥주 축제인 '비어페스트 광주'도 동시에 열린다.

일러스트페어에서는 100만 관객을 돌파한 애니메이션 영화 '킹 오브 킹스'의 장성호 감독과 인기 웹툰 '윌 유 메리 미'의 마인드C 작가가 특별 강연에 나선다.

전은옥 광주시 문화체육실장은 "20주년을 맞아 올해 에이스 페어는 단순한 전시회를 넘어 미래 기술과 산업 융합을 선도하는 종합 콘텐츠 플랫폼으로 도약할 것"이라며 "광주만의 차별화된 콘텐츠 생태계를 구축해 아시아를 대표하는 콘텐츠 마켓으로 성장시키겠다"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지방정가 라운지

이재태 "경직된 교육재정 구조 개선 서둘러야"

전남교육평가 토론회서 주장

더불어민주당 이재태(나주3)전남도원의 지난 20일 전남교육회 주최로 열린 '민선 4기 전남교육 3년 성과와 과제 토론회'에서 "전남의 학령인구 감소는 교육 문제를 넘어 재정 운용 전반에 영향을 끼친다"며 "경직된 교육재정 구조를 개선하고 지속 가능한 재원 마련 방안을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전남도교육청 예산 70% 이상이 교원 인건비 등 고정 경비로 묶여 있어 새로운 정책을 추진하거나 농어촌 학교 지원을 위한 추가 투자가 사실상 어렵다"며 "2025년 전남 학생 수는 16만 9000여 명에서 2029년 14만 5000여 명으로 급감할 것으로 예상돼 교육 수요 감소에 따른 학교



운영 및 지역 교육 기반 축소 우려가 크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도교육청의 의미 있는 사업이 안정적인 재정 기반이 확보되지 않으면 지속 가능성이 담보하기 어렵다면서 "지속가능한" 재원 마련을 위한 교부금 제도 개선을 주장했다.

이 의원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급감지역 인정과 계정'과 '최소보장액'을 법정화해 취약 지역의 교육재정을 안정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며 "지역 내 다양한 자원을 활용한 교육기금 조성과 중앙정부의 권한 이양, 재정 지원 확대가 병행되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민석 기자 mskim@

전남도, 여·순 사건 '다크투어' 운영

11월까지 맞춤 코스 진행

전남도가 오는 11월까지 여·순 사건 '다크투어'(Dark Tour)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다크투어는 비극적 역사나 참혹한 사건이 발생한 장소를 찾아가는 여행 형태다. 학살, 인권침해

등 많은 희생자가 발생했던 장소를 단순 관광이 아니라 역사적 교훈을 되새기고 추모하는 성격이다.

여·순사건 다크투어는 여·순사건의 역사적 진실을 알리고 올바른 역사 인식을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유적지를 방문하고 전문 해설을 통해 사건

을 새롭게 이해하도록 구성했다.

1일 코스와 1박 2일 코스 등 총 6회에 걸쳐 참가자 맞춤형 코스로 운영한다. 첫 투어는 오는 22일 서 울지역 대학생 20명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여·순사건 다크투어 참가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순천 YMCA 공식 누리집(www.scymca.kr)이나 공식 블로그(https://blog.naver.com/scymca7)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광주일보 73년 - 유튜브 3천만뷰 돌파



참고 매매·임대

대지 920평
건물 680평 (1·2층)

광주광역시 남구 송하동 127-3
(도로변·육교옆)

문의 **062.220.0513**
010.3646.2701